

김진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총선서 개헌 투표하자”

제헌절 경축사...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등 최소 개헌 시민 참여해 개헌 추진·공론조사 ‘개헌절차법’ 제정 추진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공감과 준비가 충분한 만큼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에 대해선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라

며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또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 제도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이를 담당하는 국회상설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헌절차법 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시민이 직접 참여해 개헌을 추진하고 공론조사를 비롯해 속의 민주주의를 적극 도입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내내 충분한 토론과 속의 과정을 거친 만큼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선거구 확정 시한을 석 달 넘게 넘긴 만큼,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남은 국회의장 임기 1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정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며 “협치와 분권의 제도화,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을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尹, 물난리에 순방 연장...부인은 명품 쇼핑”

민주, 우크라이나 방문 비판...“컨트롤타워 부재 국민 분노”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내에 호우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유럽 순방 일정을 연장하면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것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제헌절 경축식 후 기자들과 만나 ‘수해 상황에서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게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 민생을 생각하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철승 수석대변인도 취재진과 만나 “최근 12년 내 가장 많은 인명 피해가 났고 일기예보로 예견됐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 주무 장관 전부 자리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사실상 컨트롤타워 부재로, 국가가 없다는 걸 이재명들이 실감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순방 연장과 관련해 “당장 한국 대통령이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집중호우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는 입장이었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과 관련,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제 대통령 측에서 나올 이야기인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물난리로 고통을 겪을 때 대통령은 자리에 없었고 대통령 부인은 명품 쇼핑을 거닐었다”고 꼬집었다.

국회 국방위·외통위·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이탈리아 총리가 자국 홍수로 조기 귀국한 것과 너무 대조적”이라며 “재난엔 보이지 않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로 가 안보를 위기로 몰고 갔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찾아 ‘생존사 사즉생 연대’를 언급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육군 대장 출신이자 국회 국방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아주 부적절하다. ‘생존사 사즉생’ 정신으로 지켜내야 될 것은 우리 국민과 국가”라고 지적했다.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도 SNS에 “너무도 무모하고 위험하다. 멈춰 세워야 한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순방 중 ‘명품 쇼핑’ 논란 때리기도 이어가며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최재성 전 의원은 “호객 행위로 매장에 들어갔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보도된 것을 언급, “호객 당해 삼으면 ‘호객’이다. ‘호객 영부인’이 국민을 완전히 호구 취급했다”고 비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정치 원로 11인 ‘3월회’ 출범

전직 국회의장 등 여야 정치 원로 11인이 양극단으로 흐르는 한국 정치를 바로잡고 협치 복원을 논의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신영국 상임고문과 더불어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 등이 주축이 된 원로회는 제헌절인

17일 첫 모임을 갖고, 매달 1회 정기적으로 모이기로 했다.

모임에는 두 상임고문 외에도 강창희·김원기·김형오·문희상·박희태·임재정·정세균·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전직 의장 8명과 정대철 대한민국헌정

회 회장 등 11명이 참여한다.

이날 첫 모임에는 박희태·임재정·정의화 전 의장을 제외한 8명이 참석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모임에서는 대체로 한국 정치의 복원을 강력히 염원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정치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국회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양향자 신당 ‘한국의희망’ 8월 창당대회

50석 목표 전국 5곳에 시도당...10월 보궐선거에 후보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주도하는 신당 ‘한국의희망’이 8월 28일 창당대회를 열고 내년 총선을 겨냥한 활동을 본격화한다.

양 의원은 17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28일 국회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창당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에 앞서 8월 19~20일께 광주에서 광주시당 창당 행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도당은 광주와 서울·경기·부산·충남 등 5곳에서 창당한다.

양 의원은 내년 총선 목표를 ‘최소 50석’ 확보로 삼고 우선 오는 10월 11일 예정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배출에 집중할 방침이다.

그는 “일부 정치인 중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기본 소양이 된 분, 곧바로 구정을 이끌 업무 역량을 갖춘 분을 뽑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분당론이 거론되면서 분당 세력과 함께 갈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가치와 비전이 맞으면 누구에게라도 열려있다”고 외연 확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정의당 ‘신당추진 사업단’ 발족

정의당이 ‘신당추진 사업단’을 꾸리고 녹색·노동·다당제 연합정치를 중심으로 한 재창당 작업을 본격화했다.

녹색·노동·다당제 연합정치라는 방향을 정한 정의당은 신당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다음 달 비전 포럼과 연속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당 안팎의 인물, 정치 전문가들과 논의해 양당 정치에서 소외된 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방향, 정치적 가치와 비전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또 오는 10월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녹색과 노동이라는 가치에 동의하는 정치세력과 함께 하기로 했다.

신당추진 사업단은 당 혁신 작업을 집행하는 당 대표 산하 기구다.

정의당은 당내 토론을 거쳐 9월 중순께 구체적인 신당 추진 방안을 정하고, 9월 말~10월 초 당대회를 열어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초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